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2006년 병술년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여 회원 여러분의 건강과 가정에 행운과 축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학문과 덕망이 부족한 제가 회원 여러분의 성원에 힘입어 제23대 한국고분자학회 회장으로 봉사하게 되어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미력이나마 회원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회원 여러분들께도 많은 격려와 협조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올해는 한국고분자학회가 창립 30주년을 맞이하는 매우 뜻 깊은 해입니다. 그동안 우리 학회가 역대 회장님들의 훌륭한 지도력과 역대 임원, 운영이사 및 전회원의 적극적인 참여와 헌신적인 봉사, 그리고 산업계의 적극적인 지원에 힘입어 어느 학회보다도 많은 성장을 이루어 왔으며 국내 고분자산업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여왔다고 생각합니다. 한국고분자학회는 회원 3천여명, 년차 학술대회에서의 발표논문 수 1800여편, 영문지 “Macromolecular Research”의 2002년도 SCI 등재, 나아가 해외평가도 계속 상승하여 science impact factor가 1.58에 달하는 등 국내 화학계에서 정상을 달리고 있으며, 국제적으로도 인정받고 자리를 굳혀가고 있는 거대한 학회로 발전하였습니다.

금년에 우리 학회가 창립 30주년을 맞이하게 됨에 따라 뜻깊은 여러 가지 행사를 계획하여 화합과 축제의 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4월 5~7일에는 일산 KINTEX에서 고분자 신기술강좌, 고분자춘계총회 및 학술발표회가 열리게 되고, 여기서 학생취업을 위한 기업체와 학생과의 만남의 장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특히 5월 19~20일에는 창립 30주년 기념 고분자 대토론회가 계획되어 있고, 10월 10~13일에는 부산 BEXCO에서 창립 30주년 기념 국제 학술회의(조직위원장 한국과학기술원 김성철 교수, 사무총장 성균관대학교 이두성 교수)가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본 학회 창립 30주년 기념행사 및 추계총회와, 국제학술회의와 때를 맞추어 BEXCO에서 고분자 work-shop을 개최하고, 여기서도 학생취업을 위한 기업체와 학생과의 만남의 장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또한 저는 금년에 본 학회를 국내외적으로 위상을 높이고 산·학·연 협력관계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산업계 수석부회장제 도입을 추진하겠습니다. 그 간 학계 및 연구원에서 회장을 맡아오던 것을 산업계 수석부회장제를 도입하여 산업계의 회장도 학회의 발전을 위해 공헌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제도의 도입은 산·학 협동을 더욱 증진시키고 회원 저변확대에도 크게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 학회가 한층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본인은 금년에 계획된 사업을 운영하고 수행하기 위해, KIST의 안광덕 수석부회장님, 인하대학교의 윤진산, 도레이새한의 이영관, 한국화학연구원의 최길영 부회장님들, 그리고 학회 운영전반을 담당할 경희대학교의 김정안 전무이사님, 인하대학교의 김철희 총무이사님 및 여러 운영이사님들과 합심 협력하여 고분자학회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회원 여러분들께서는 우리 학회의 발전을 위하여 많은 조언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특히 산업계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전년도에 어려운 가운데서도 학회를 원만하게 이끌어오신 전임 조원호 회장님, 모든 일을 열성적으로 수행한 조재영 전무이사님과 많은 시간을 희생하여 헌신적으로 봉사하신 운영이사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새해를 맞이하여 다시 한번 회원 여러분의 모든 소망이 이루어 지시고 여러분의 건강과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2006년 1월 1일
신임회장 김 봉 식